

정 론

당 제 7 차 대 회 를 향 하 여 !

하나의 부품을 암고 천만이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

조선의 2016년의 이념과도 같고 눈앞에 다가선 벽면 승리와 행복의 예령과도 같은 이 부름으로 새해를 맞이한 장산이 끝고 인민이 설레인다.

올해에도 우리 새해의 가장 큰 기쁨은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그 시작이었다.

필승의 신심에 넘치시어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전군으로 확신 있게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수백만 당원들이 심장으로 새기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힘있게 선언하시는 그의 말씀은 당중앙에서 당원회 한길을 고가고 천만대오에 높이 울려주신 2016년의 우렁한 진군과였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혁사적인 분수령으로 뛸 당 제 7 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조국혁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폭풍기상이 강산을 진감한다. 당 제 7 차대회를 향한 원수님과 당원들이 전투드는 조선의 1월이다.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세번 첫 수소련의 장관 폭음은 승리의 5월에로 질풍처럼 털려는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맹을 불울이주고있다.

어디서나 최상, 최대의 목표가 세워지고 그것을 향한 광활한 틀격전으로 새해의 날과 밤이 이어지고있다.

백두전구에 불바람이 있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수십일동안에 상하류가 막았던 공사결속, 취수구크로트치기 및 발전기설 기초굴착공사결속,

그 기상과 열정을 늦추지 않고 새해 첫날부터 렌일 놀라운 공사실적을 풀리고있는 백두청춘들, 집체같은 얼음장이 등등 떠내려오는 한겨울의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호호랑탕 노래를 부르고 웃음을 달리며 승리의 5월을 향해 배진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불덩이같이 뜨는 정성은 하나이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를 당 제 7 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완공하자!

어디든지 좋다. 누구라도 좋다. 온 나라가 이런 폭풍기상으로 고동친다.

새해벽두부터 들려오는 자랑찬 위훈의 소식들은 당 제 7 차대회를 향해 내닫는 온 나라의 거세한 발파를 소리로 금지높이 전해준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철에서 울린 첫 출신의 소식도 죽고 지난 1일 무산의 광부들이 터친 50만トン대 밭과의 우렁한 퇴성도 좋다. 해산—삼지연은 철길전설장에 나래치는 위훈의 불길에도 그 기상이 실려온 고검역지구의 비약의 기세에도 그 정신이 어려운다.

당 제 7 차대회를 향하여 ! 이것이 강산을 진감하는 이 시대의 거세한 술결이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나래치는 모든 기적과 위훈의 밀부이며 천만의 심장에 하나로 맷동하는 억척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무엇때문인가.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그 부름을 가슴에 암은 천민의 심장이 이름 못할 걱정과 환희로 격랑치고 그것을 향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고 기세차고 희망에 넘치는 것은, 우리의 당대회소식이 한 나라의 지경을 넘어 세계의 《특대뉴스》로 울리고 조선을 암살한다고 계거품을 물고

날뛰면 원쑤들이 그렇듯 강력한 정치진동을 느끼며 공포에 전율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당 제 7 차대회를 향하여 ! 이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눈부신 승리를 이룩하고 가장 휘황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 이 나라 천만군민의 드높은 긍지와 희열의 활화산같은 불길이다.

승리자의 길에 우뚝 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광의 5월을 안고 사는 이 나라 민심의 제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전정의 고백이고 토로이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설매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축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성대히 거행될 때를 놓지 않으려는 그 시각은 무심히 새길수 없다. 어찌

공장과 일터에만 새겨진 글밭이야. 환희의 5월을 향해 달려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끓어솟는 자부이고 걱정이다.

당을 따르며 걸어온 길을 궁지높이 돌아보는 이 시각 우리 눈앞에 놓은 어려운 것은 이 글을 무심히 새길수 없다. 어찌

공장과 일터에만 새겨진 글밭이야. 환희의

격정이 전세계를 전감하고 있다. 《탈라제국》의 불괴와 함께 《악의 제국》이 멀망하고 있다.

위대한 배전배승의 항도자 조선로동당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억세게 만장악하는 이 시각,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 갈 폐일의 길을 신심드높이 바라보는 우리의 심장은 무었으로 하여 더욱 세차게 고동치고있어가.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리라 ! 이것이 우리 당 제 7 차대회가 지닌 빛나는 부품이며 세계를 진동하는 그 거대한 의미이다.

《승리자의 대회》,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것은 그 글을 무심히 새길수 없다. 어찌

공장과 일터에만 새겨진 글밭이야. 환희의

5월을 향해 달려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끓어솟는 자부이고 걱정이다.

우리 당 제 7 차대회,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듯이 우리 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인 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 당 제 7 차대회가 위대한 김정은同志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각국의 언론들이 앞을 달려 전하고 있는 들판의 승리의 헌장을 보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는 우리 당 제 7 차대회를

민족사적대사변을 안아온 영웅중의 영웅들이 받아안은 최대의 특전과 특혜

당의 은정 속에 첫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이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였다

【평양 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뚫고 백두산대국의 수소탄개발자들이 윤민자위의 핵괴성, 장쾌한 승리의 포성을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배진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사기를 백배해 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용을 누리며 멀친 핵개발자들이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축복속에 최상최대의 영광을 누리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이 1월 8일부터 13일까지 한생토록 잊지 못할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었다.

백두산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평양에 도착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평도로 조국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자립적 국방공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반민년민족사에 특기할 첫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음을 삼가 아뢰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개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부르시어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와 안전을 높이ing하게 담보하고 제국주의 전쟁팔들의 정수리를 칠퇴를 암긴 그들의 위훈을 둘러 평가하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주체의 뿐은 당기가 펼리이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에서 꿈결에도 빙고 원梦境에 하는 원수님을 환자리에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감격파 행복에 겨워 수소란개발자들은 뜨거운 결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였다.

당의 전략적 구상을 받들고 애국의 초침을 당의 숨결에 맞추어 백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으로 투쟁한 영웅중의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고고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배두산총대의 위력을 공화국영웅칭호를 비롯한 당 및 국가표장을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이바지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을 축하하는 영광대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기여한 개발자들에게 전세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전하였다.

일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될 평양체류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은 선군총대의 고향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개발자들은 또한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파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훌륭히 변모된 만민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문수물들이장과 현대적인 종합봉사관 «무지개호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어머니당의 은정을 기습드겁게 새기었다.

그들은 당의 병진로선판관에서 이루어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성대한 연회와 은정어린 생일상도 마련해 주시고 충직하게 밟들어 배두밀림의 연길폭탄과 사랑의 선물도 가슴가득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부강조국건설과 민족민대의 번영을 위한 국위업수행에서 군자리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 갈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1년을 10년 맞잡아로 비약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주체핵무

장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해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혁지도자죽을 따라 사진문화들과 사적물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그들은 주체적 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고고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그들은 당의 병진로선판관에서 이루어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성대한 연회와 은정어린 생일상도 마련해 주시고 충직하게 밟들어 배두밀림의 연길폭탄과 사랑의 선물도 가슴가득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부강조국건설과 민족민대의 번영을 위한 국위업수행에서 군자리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 갈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영광파 행복의 최점정에서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낸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이 13일 귀로에 을왔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대학거리, 옥류교,

창전거리, 개선문, 용흥네거리, 련못동에 이르는 수십리연도에서 10여만의 수도시민들이 주체의 핵괴성으로 천민군민에게 무변광대한 우주의 신비함을 다 모아도 비길수 없는 큰 힘을 안겨주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굴의 기개와 위용을 만천하에 파시한 자랑스러운 영웅들을 향해 뜻다발을 흔들며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장하고 미더운 위호자들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은 자주와 정의의 핵괴성을 안아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점정기를 열어갈 불타는 애국충정의 분출이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오늘의 영광파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병진로선을 결사판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감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우력은 민족주의 우력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높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래와 대중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꽃 피는 학원에 기쁨은 넘치고 인민은 한 가정 차량은

운전대우에

새해의 첫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선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 1·4·8호 운전사 최운기 팀은 종종 밤길을 훑쳤다.

그가 집을 나선 것은 1월 1일 새벽 4시,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를 걷는 그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전차가 서는 3·6개의 정류소가 소중히 새겨졌다.

정은 일리, 사랑하는 무궤도 전차, 친근한 손님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그는 일터에 다달았다. 대내는 흥성거렸다. 모두가 일찍 일터에 나온 것뿐이었다.

정다운 일터를 둘러보며 1·4호 무궤도전차에 탈탈 털기면 그의 얼굴이 삶 시에 밝아졌다.

차장너머로 끌어다보이는 운전대우의 꽃다발, 그는 성큼 걸어나왔다.

꽃다발 속에 풋여 있는 편지가 보였다. 거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장갑이며 전차판리 도구들,

누가 남모르는 좋은 일을 했을까?

편지를 펼쳐들고 글줄을 더듬는 그의 머리속에 파악한 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복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입니다.』

평양방직기계공장 견사사업반은 인원이 업손가락에도 차지 않을 정도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모임을 한 뒤에는 몇몇 안되는 반원들이 제각각 담당한

생산단위로

찾아가 견사작업을 진행하고

점심 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되어야 다시 모이는 이 작업반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해여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처럼 화복하고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는 작업반으로 공장사람들의 부려움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최기국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의 오랜 동료たち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이 공장에 세계대백당을 끝내고부터 3·0여년간 로동자로 성실하게 일하온 최기국동무는 이작업반의 당시 포비서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에게 진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蟠의 가르침은 최기국동무의 좌우명이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이란 곧 그의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날

넘치네

어제와 오늘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이 창조되는 내 조국땅에 힘 있게 올려퍼지는 행복의 노래,

노래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 들어와 꽂여난 몇 가지 이야기를 펼치고 이 물음을 대답하려고 한다.

놓인 꽃다발

동보안원복을 기분하게 입은 처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운행길에서 정이 든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너성 교통보안원들,

이름은 물라도 해마다 새해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이 그득히 들려있었다.

문득 리육실통무의 눈앞에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의 첫색이며 흘러간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톡막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경축의 밤</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진 조선인민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존엄높은 민족

이 달에 또다시 정의의 해회성이 끝나고 있다.

주제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표시하며 행성을 위로 훈드는 특대 사변 소식이 전파를 타고 우주 공간에 울려 퍼졌다.

《북조선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 단번에 파시!》, 《수소탄시험으로 나라의 자주권 수호 또다시 천명!》, 《군사력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인 사변!》, 《수소탄시험 성공에 아연해진 미국과 남조선》, 《남조선 군부에 떨어진 청천벽력!》...

세계의 통신, 방송망을 비롯한 전세계 언론들이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 성공 소식으로 불도 가능처럼 펴버리고 있다.

핵보유국의 당당한 자위를 더우기 하는 이번 우리의 수소탄시험 성공 소식은 우리 계급에 물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으로서 신심과 탁판을 안겨주었으며 핵폭발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고 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 앞에서 『여여 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 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 수 없다. 이 진리는 북장한 정세와 동파 제국주의의 압살해 등으로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복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위대한 평정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 속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은 물론 남조선에

족적 공지와 자부심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불폐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 부르며 찬양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공화국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위대한 평장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은 세계를 끌어모여 사는 존엄 높은 민족으로 되었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격동에 넘친 목소리이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은 『남이 사는 내 땅』이라고 칭하며 수치와 광욕을 당하고 있는 남녀겨레들이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존엄 높여 국제 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더더욱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

들 앞에서 『여여 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지킬 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 수 없다. 이 진리는 북장한 정세와 동파 제국주의의 압살해 등으로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복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위대한 평정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 속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은 물론 남조선에

이렇게 말하였다.

『북이 자주국방의 무쇠주먹을 얹어세계 버릴 때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엄높고 평화로우며 강성번영 한다는 것을 우리 는 잘 알아야 한다. 미국이 제 아무리 복을 눈에 든 가치처럼 여기면서 폐권주의의 더러운 애심을 실현하려고 책동해도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북은 선군정치를 국가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 북에는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발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위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어 북은 미국의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공인하고 있다.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지각변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세로운 진짜 강대국 조선이 국제평세를 확보하고 있다.』, 『조선의 맏 아버지와 움직임에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이 어제날의 혈렬 강중심의 세계정치 구도에 파벌구를 내며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니 어찌 세계가 그에 대해 『지각변동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집진 정직적 압박과 경제적봉쇄,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우리 공화국은 한없는 민

족적 공지와 자부심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불폐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 부르며 찬양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공화국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위대한 평장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은 세계를 끌어모여 사는 존엄 높은 민족으로 되었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격동에 넘친 목소리이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은 『남이 사는 내 땅』이라고 칭하며 수치와 광욕을 당하고 있는 남녀겨레들이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존엄 높여 국제 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더더욱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

들 앞에서 『여여 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지킬 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 수 없다. 이 진리는 북장한 정세와 동파 제국주의의 압살해 등으로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복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위대한 평정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 속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은 물론 남조선에

이렇게 말하였다.

『북이 자주국방의 무쇠주먹을 얹어세계 버릴 때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엄높고 평화로우며 강성번영 한다는 것을 우리 는 잘 알아야 한다. 미국이 제 아무리 복을 눈에 든 가치처럼

여기면서 폐권주의의 더러운 애심을 실현하려고 책동해도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북은 선군정치를 국가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 북에는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발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위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어 북은 미국의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 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

들 앞에서 『여여 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지킬 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 수 없다. 이 진리는 북장한 정세와 동파 제국주의의 압살해 등으로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복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위대한 평정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 속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은 물론 남조선에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은 세계정치 구도에 파벌구를 내며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니 어찌 세계가 그에 대해 『지각변동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집진 정직적 압박과 경제적봉쇄,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우리 공화국은 한없는 민

족적 공지와 자부심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불폐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 부르며 찬양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공화국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위대한 평장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은 세계를 끌어모여 사는 존엄 높은 민족으로 되었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격동에 넘친 목소리이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은 『남이 사는 내 땅』이라고 칭하며 수치와 광욕을 당하고 있는 남녀겨레들이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존엄 높여 국제 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더더욱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

들 앞에서 『여여 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지킬 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 수 없다. 이 진리는 북장한 정세와 동파 제국주의의 압살해 등으로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복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위대한 평정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 속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은 물론 남조선에

이렇게 말하였다.

『북이 자주국방의 무쇠주먹을 얹어세계 버릴 때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엄높고 평화로우며 강성번영 한다는 것을 우리 는 잘 알아야 한다. 미국이 제 아무리 복을 눈에 든 가치처럼

여기면서 폐권주의의 더러운 애심을 실현하려고 책동해도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북은 선군정치를 국가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 북에는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발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위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어 북은 미국의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 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

들 앞에서 『여여 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지킬 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 수 없다. 이 진리는 북장한 정세와 동파 제국주의의 압살해 등으로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복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위대한 평정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 속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은 물론 남조선에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은 세계정치 구도에 파벌구를 내며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니 어찌 세계가 그에 대해 『지각변동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집진 정직적 압박과 경제적봉쇄,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우리 공화국은 한없는 민

자주권 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대성과

인도네시아정당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파 우리 공화국의 헌법에서 자주적으로 물어나가며 조선반도의 성공적인 첫 수소탄시험을 지지하여 인도네시아선봉당 차당 중앙지도부 사회가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선봉당 차당 중앙지도부 사회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나온 방안이 아말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가중되는 압살책 통제에 대처하여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공적인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공적인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법가리아, 네팔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첫